

한국 석유화학제품 국제시장 “왕따”

KOTRA, 2004년 무역분쟁 심화 조짐 ... 인디아·중국은 견제수위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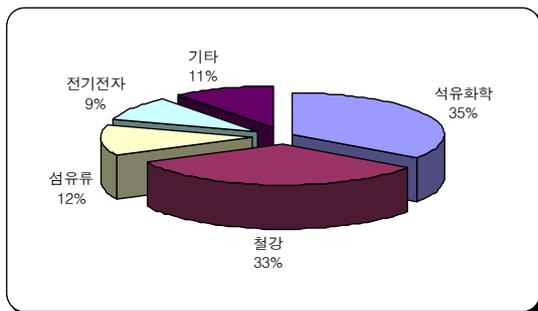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마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2003년 신규 피소제품 17건 가운데 10건을 차지한 화학 관련제품은 2004년에도 인디아, 중국 등의 견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다.

KOTRA가 발표한 <2003년 수입규제 동향 및 2004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불안정한 국제통상 환경과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확산으로 수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은 2003년 말 기준으로 석유화학에서 48건, 철강 45건, 섬유 17건, 전기·전자 13건, 기타 15건 순으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수입규제업종 현황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는 인디아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1건, 오스트레일리아 6건, 미국과 남아프리카 각 3건, EU와 인도네시아 각 2건, 브라질 1건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전체 산업에서는 인디아의 수입규제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4건, 중국 17건, EU 및 오스트레일리아 각 10건, 남아프리카 9건으로 선·후진국 구분 없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형태로는 반덤핑 119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11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3건이었다. 특히, 반덤핑 비중이 86%를 차지해 국내 수출상품이 아직도 가격경쟁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2003년 신규 제소건수 17건 중 개도국의 제소가 12건으로 파악돼 개도국의 통상공세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제품 관련 신규피소 현황(2003)

조사개시일	구분	제소국가	내용
02.19	염화메틸(Methylene Chloride)	인디아	반덤핑
05.21	Flexible Slabstock Poly	인디아	반덤핑
06.27	열전사 리본	미국	반덤핑
05.30	클로로포름(Chloroform)	중국	반덤핑
06.06	PSF(Polyester Staple Fibre)	인도네시아	반덤핑
07.01	광섬유	중국	반덤핑
08.22	Propylene Glycol	인디아	반덤핑
08.22	PVC Paste Resin	인디아	반덤핑
11.19	PET	브라질	반덤핑
12.17	Hydrazine Hydrate	중국	반덤핑

KOTRA는 “교역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구조 개편으로 수출산업을 고도화, 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1>